

# 혐오, 그 분석과 철학적 소고

최현철\*

**주제분류** 철학, 윤리학, 사회철학, 언어철학

**주요어** 혐오, 공포, 역겨움, 증오, 도덕적 합리화

## 요약문

이 글의 목적은 콜라이(A. Kolnai)가 제시한 혐오의 양태인 공포, 역겨움, 그리고 증오를 중심으로 현대 우리 사회에 화두로 자리 잡은 혐오에 대해 개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나는 혐오를 각각의 영역에서 감각적 혐오감과 생존의 혐오감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생존적 혐오감은 죽음과 같이 극단적일 경우 이성의 원초적 개입을 허용한다. 공포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인다. 여기에 동조하는 철학자로는 홉스(T. Hobbes)와 요나스(H. Jonas)가 있다. 또한, 나는 관념과 현상학적 영역에서의 혐오로 문화적 혐오와 권력적 혐오를 제시하였다. 역겨움은 개인적 감정에서 사회적 관념으로 확산력을 보인다. 하이트(J. Haidt)와 같은 현대의 도덕 심리학자들은 문화적 혐오로 확장된 역겨움이 의사결정이나 도덕 판단에서 주도적인 임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역겨움이라는 감정이 문화적 혐오로 확장되는 한, 의사결정이나 도덕 판단에서 이성의 역할이 흄(D. Hume)이 주장한 것처럼 정념의 노예는 아니다. 그리고 증오는 혐오감이 분노와 동반되어 나타난다. 증오는 대개 경멸이나 적대로 표출된다. 이때 혐오는 권력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권력적 혐오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을 정당화 하고자 하는 도덕적 합리화를 나타낸다.

---

\* 호서대학교

## 1. 혐오(Aversion)와 그 양태

우리는 얼굴과 같은 신체적 특징뿐 아니라 관심 영역, 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 여기서 '다르다'라는 것은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차이의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는 차별로 변했다. 남녀차별,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학력차별 등이 그러한 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실질적으로 존재해 왔고, 왜 차별이 부당한 것인지에 관한 주장이나 이론들도 많이 있었다. 하지만 혐오는 차별과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본래 혐오는 감정이지 사태가 아니다. 혐오는 그 자체가 어떤 행위의 근거나 이유가 되는 감정을 동반한다는 차원에서 차별과 개념적으로 다른 영역에 속한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함이다. 또한 혐오(嫌惡)는 한자로 싫어할 혐嫌과 미워[나쁨]할 오惡가 함께 있는 단어다. 더욱이 집단지성으로 구성되는 위키피디아 사전에서 혐오는 “어떠한 것에 대한 공포, 불결함 따위 때문에 기피하는 감정으로, 그 기피하는 정도가 단순히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정도를 넘은 감정을 의미한다.”<sup>1)</sup>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혐오’라는 말은 단순히 무엇을 싫어한다는 개인의 기호적 성향을 넘어 더 강한 싫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나 ‘여성혐오주의’나 ‘남성혐오자’와 같이 싫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나 행위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차별은 인종, 장애, 성별 또는 기타 개인적 특성을 이유로 특정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sup>2)</sup> 그래서

1) <https://ko.wikipedia.org/wiki/%ED%98%90%EC%98%A4>을 참조(검색일: 2017. 4. 1).

2) 현재 유엔을 비롯한 미국, 호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 서구각국에서 금지하는 차별(discrimination)은 이러한 직접차별과 함께 간접차별, 그리고 괴롭힘(harassment)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조순경(2002), 27쪽.

“여성혐오”가 특정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차별”은 그 범위가 넓고 더욱 모호한 개념이다.

언어와 개념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듯 ‘혐오’와 ‘차별’이라는 개념도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의미체로 구성될 수 있다. 원래 혐오감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서 머물러 있어 밖으로는 잘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혐오는 차별보다 극단적인 어떤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김치녀’와 같이 혐오감을 드러내는 표현은 ‘여자는 ~ 해야 한다’는 식의 성차별적 표현보다 매우 거칠고 극단적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식으로 “혐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러한 의미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등장하는 “혐오”라는 말은 단순한 인간의 감정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로 세간의 주목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두운 일면을 보여주는 단어로 확산 되었다.<sup>3)</sup>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혐오는 단순히 개인의 기호나 주관적 감정 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을 넘어 그것이 지닌 사회적 해악의 심각성이나 파장, 나아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모색까지도 동반해야 하는 시대적 화두가 되었다. 결국, 혐오는 개인의 감정에서 사회화된 사건이나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다. 2016년 “혐오표현”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김형환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우리 사회의 혐오를 감정이 아닌 사회적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인간이 본디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또 개인의 기호와 감정도

3) 2016년 7월에 조사한 한국 언론 재단의 온라인 인식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 강남역 사건을 여성혐오로 인식하는 비율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71%가 인종민족의 차별적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성적기호[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차별표현 역시 64.7%,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표현이 61%, 성별이 60%, 종교가 52% 순으로 혐오를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https://brunch.co.kr/@kpf10/236> 검색일: 2016. 12)를 참조.

선협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사회 관계를 통해 발현된다는 점에서 혐오는 명백히 사회적 현상이다.” 4)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감정에서 사회현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혐오”라는 개념에 대해 《역겨움5)에 관하여: On Disgust》의 공동저자이자 현상학자인 콜라이(A. Kolnai)는 혐오의 표준적인 세 가지 양태로 공포(fear), 역겨움(disgust) 그리고 증오(hatred)로 제시하면서 혐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6) 이 글은 콜라이가 제시한 혐오의 세 가지 양태들을 개념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개인적 감정인 혐오가 사회적 현상으로 발전했는지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 글은 우선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드리고 있는 혐오감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혐오가 개인의 감정에서 사회적 현상으로 확산적 과정을 설명한다. 그리고 혐오와 세 양태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분석하면서 혐오의 네 유형과 그 양태들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논의는 구성된다. 결국 이 글은 혐오와 혐오의 양태들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논의된 철학적 주제들이 대체로 윤리적 문제들로 집중되어 있음도 동시에 밝힌다.

---

4) 김형환(2016), 3쪽.

5) 영어 “Disgust”를 혐오로 번역하는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글에서 필자는 영어 ‘Aversion’을 감정에서 사회적 관념으로 확산된 의미에서 ‘혐오’로 번역하고 Disgust는 역겨움이나 역겨움에 의한 혐오로 번역하겠다. 그리고 hatred는 증오로 번역하겠다. 더욱이 이 글에서 사용되는 혐오는 혐오가 개인적 감정을 나타낼 경우에는 ‘혐오감’으로 표현하고 사회적 현상이나 개인적 감정 이상의 의미를 지닐 경우에는 ‘혐오’로 일관적으로 사용하겠다.

6) Kolnai, A(1998), 581쪽.

## 2. 혐오의 유형

혐오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해로움을 결과할 것이라 생각하여 그 무언가를 배척하는 감정으로 어떤 사회적 태도나 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잠재태다. 그래서 혐오는 자신에게 직·간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방어하는 심리를 동반한다. 물론 혐오는 다양한 상황에서 표출되는 감정임은 분명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소의 눈알을 먹는다는 생각만으로 우리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죽은 닭을 사서 요리하기 전에 그 닭과 성관계를 가진 후, 그것을 자주 요리해서 먹었다는 사건을 접해도 우리는 역겨움에 의한 혐오감을 느낀다. 그렇다면 이러한 혐오감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 필자는 약간의 역겨운 예를 들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느끼는 혐오감의 유형을 개인에서 사회로의 확산적 차원에서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만일 어떤 한 사람이 매우 썩어 악취가 심한 어떤 음식 쓰레기를 먹고 있다고 가정하자. 대부분의 사람은 그 광경을 보고 다양한 방식에서 혐오감을 가질 수 있다. 첫 번째, 그 쓰레기의 냄새나 쓰레기를 먹는 모습 때문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때의 혐오감은 “감각적 혐오감”이라 규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냄새나 시각에 의한 혐오감을 넘어 그 쓰레기를 먹는 것이 사람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때의 혐오감은 “생존적 혐오감”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감각적 혐오감이나 생존적 혐오감은 진화 생물학자들에 의해 잘 설명되고 있다. 일찍이 다윈(C. Darwin)은 혐오감, 특히 역겨움은 다양한 표정과 몸짓으로 표현되지만, 그것은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며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sup>7)</sup> 그리고 현대의

7) Darwin, C.(1872), 262쪽.

진화 심리학자들도 역겨움에 의한 혐오를 하나의 사회적 적응으로 간주하며, 그 역할은 ‘신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sup>8)</sup>’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혐오의 경험은 오염된 식품을 만지거나 섭취하는 것을 피하도록 진화되었고 이러한 혐오감 덕분에 병원균이나 독소가 함유된 물질을 섭취할 가능성이 적다<sup>9)</sup>

세 번째 혐오의 유형은 그 쓰레기를 먹는 사람이나 그 행위에 대한 감각적 혐오감이나 생존적 혐오감은 없지만,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의 문화나 관습과 너무나 이질적이어서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다. 이런 경우의 혐오는 “문화적 혐오”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혐오의 유형은 썩은 음식 쓰레기를 먹는 사람을 애초에 자신보다 미개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그 행위는 반사회적인 사람의 행위로 간주하고, 그것이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믿는 ‘관념’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나 존재로 간주하기에 그와 그 행위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며 그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 경우다. 이것을 필자는 “권력적 혐오”로 분류하겠다.

앞의 두 혐오감의 기원에 대해서는 주로 진화론이나 진화심리학자들의 견해가 그 설명의 우위를 가진다. 하지만 문화적 혐오나 권력적 혐오는 혐오가 단순히 감정의 경계를 넘어, [오염된] 현실사회로부터 자아를 보

---

8) Curtis, V., Aunger, R., Rabie, T.(2005), 131쪽.

9) 커티스(V. Curtis)가 이끄는 연구팀은 역겨움에 의한 혐오감의 기원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그들은 이런 혐오감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생겨났기에 다음과 같은 가설들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1) 사람은 유사한 자극에 직면했을 때, 질병과 무관한 자극보다는 질병과 관련된 자극에 더 강한 [역겨움에 의한]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2) 다양한 문화권에 걸쳐 혐오감의 작용방식이 유사할 것이다. (3) 여성은 자기 자신과 자녀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이중역할을 떠안은 만큼, 남성보다 더욱 확연하게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4) 개인의 생식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혐오감도 약해질 것이다. (5) 낯선 사람들은 새로운 병원균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기에, 사람들은 가까운 친척보다 낯선 사람들과 접촉할 때 더욱 강한 혐오감을 느낄 것이다. Curtis, V., Aunger, R., Rabie, T.(2005), 131~132쪽을 참조.

호하려는 상징적 관념으로 확산된 것이다. 즉 이때의 혐오는 개인적 감정을 넘어 윤리나 문화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현상이나 관념이라는 것이다.<sup>10)</sup> 이런 혐오의 현상학적·관념론적 견해는 앞의 진화심리학자들과는 대조를 이룬다.<sup>11)</sup>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네 가지의 혐오의 유형을 가지고 콜라이가 말하는 혐오의 양태들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보자.

### 3. 혐오의 양태 분석 1: 공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콜라이에 의하면 혐오의 양태 중 하나가 공포<sup>12)</sup>, 즉 두려움이다. 우리말 “두려움”의 어근인 ‘두르다’는 둘러싸인다는 의미로, 적이나 맹수에 둘러싸였을 때의 감정을 표현한다. 혐오감을 주는 두려움은 개인에게 죽을 것 같은 감정으로 무서움을 유발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예를 들어,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난간도 없는 빌딩 옥상의 모서리에 있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감정을 지니게 된다. 아마도 그는 그 공포증 때문에 빌딩 옥상의 모서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옥상에 올라가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싫어할 것이다. 콜라이는 이러한 공포감이 있는 행위자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자신의 소유물, 신체, 또는 자신의 생존, 안전, 복지,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대상으로부터 도망친다고 말한다.<sup>13)</sup>

10) Rozin, P., Haidt, J., & McCauley, C. R.(2008), 642~646쪽.

11) 물론 현상학과 관념론의 관점이 진화심리학의 접근방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이것의 자세한 논의는 페슬러와 헤일리(Fessler, D., Haley, K.(2006)), 3~19쪽을 참조.

12) “공포(恐怖)”라는 한자어도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두려울 공(恐)’과 ‘두려울 포(怖)’가 합해진 말이다. 동양에서 말하는 칠정(七情)[희로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중에 네 번째 구(懼)가 두려움을 의미한다. 구(懼)는 의미 부분인 心(마음 심)과 발음 및 의미 부분인 瞿(불 구)가 합해진 말로, 마음(心)이 놀라 두 눈(目)을 크게 뜨고 새(佳)처럼 두리번거리며 보는 심정을 뜻한다.

13) Kolnai, A(1998), 584쪽.

앞 절의 혐오 유형에 따르면, 공포는 생존적 혐오감에 속하는 혐오의 양태다. 여기서 혐오와 공포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추론, 조건, 인과문장으로 이 두 감정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보자.

- (가) 어떤 사람이  $x$ 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  $X$ 를 혐오할 것이다.
- (나) 어떤 사람이  $x$ 에 대해 공포를 느낀다면, 그 사람은 그  $X$ 를 혐오한다.
- (다) 어떤 사람이  $x$ 에 대해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X$ 를 혐오한다.

공포와 혐오가 (가)의 관계라면, 공포심을 가진다는 것이 그것을 혐오하는 근거나 이유 혹은 정당화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공포와 혐오의 관계가 심리적 혹은 감정 사이의 영역에서의 차원을 넘어 추론이나 언어적으로 분석될 수 있는 영역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공포와 혐오가 (나)의 관계라면 “어떤 사람이  $x$ 를 혐오하지 않는다면, 그는  $x$ 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을 논리적으로 용인해야만 한다[대우명제  $p \rightarrow q \equiv \sim q \rightarrow \sim p$ ]. 하지만 의도적으로 공포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공포와 혐오의 관계가 (다)의 경우라면, “어떤 사람이  $x$ 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면, 혐오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가능하다.<sup>14)</sup> 하지만 어떤 사람이 여성들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 않았더라도 여성 자체를 혐오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 조건, 인과의 분석들도 공포와 혐오의 관계를 많은 부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공포와 혐오의 관계가 감정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성의 분석이 허용되는 감정 간

---

14) 이 분석은 어떤 사건들 간의 인과적 의존관계(causal dependence)를 반사실적 조건문을 통해 분석한 루이스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그에 의하면 “인과관계에 있는 사건  $e$ 가 사건  $c$ 에 인과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c$ 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e$ 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Lewis D.(1973), 563쪽.

의 관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특히 위의 x가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일 경우, 이성적 판단의 개입을 용인하는 관계다. 이 견해는 홉스(T. Hobbes)에 의해 잘 설명된다. 그는 어떤 도덕적 윤리나 종교적 교리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각자의 신앙이나 도덕적 기준의 차이를 넘어 정치철학의 출발점으로 생존의 욕구와 죽음에 따른 공포를 제시한 철학자다. 홉스는 공포 그 자체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포에 따른 혐오감이 자연 상태의 자연인에게 이성적으로 윤리나 평화를 지향하게 하는 실마리라고 강조한다. 그에 의하면 자연 상태에 놓인 인간은 “자신의 욕구(appetite) 또는 욕망의 대상이 되는 건 무엇이든 자기편에서 ‘선’이라 부르며, 미움 또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악’이라 부른다.”<sup>15)</sup> 공포가 악과 관련된 정념<sup>16)</sup>이고, 명예심과 같은 욕망이 선과 연관된 정념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정념의 차이를 홉스는 도덕적 선악의 비대칭으로 설명한다. 한편, 욕망은 하나의 선에서 다른 선으로 끊임없이 이행하지만, 홉스에게 최고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그에게는 최고악만 존재하는 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며 그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정념이다.

“[다양한] 정념 중에서 인간이 평화를 지향케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 날찍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는 의욕, 근로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의 시사에 따라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평화의 적절한 조항을 생각해낸다. 이와 같은 제 조항을 자연법이라 부른다.<sup>17)</sup>

15) Hobbes, T.(1651), 33쪽.

16) 서양에서 17, 18세기에 데카르트, 홉스, 흄이 정념(passion)이라 부른 것들의 대부분과, 다윈과 현대 철학자들이 감정(emotion)이라 부른 것 모두, 그리고 스피노자, 칸트, 그리고 프로이트를 비롯한 많은 심리학자들이 정서(affect)라 부른 대부분이 오늘날 감정(emotion)이라는 의미로 통합되어 사용된다. ...(중략)... 20세기 이후 ‘감정’은 중립적 의미로 사용된다.[양선이(2014), 7쪽을 참조] 이 글에서 정념이나 감정, 정서는 각 저자들의 시대적 용어에 따라 사용하겠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 스트라우스(L. Strauss)는 죽음에 대한 근본적으로 정의로운 공포라는 도덕적이고 인문주의적 반정립(antithesis)이 바로 홉스 정치 철학의 근본 바탕이라고 평가한다<sup>18)</sup>. 그 뿐만 아니라 요나스(H. Jonas)는 ‘책임의 원칙’에 강조되는 윤리적 감정의 요소가 공포라고 주장한다. 그는 기술의 권력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 의무로 “공포의 발견술(Heuristik der Furcht)”<sup>19)</sup>을 강조한다. 이러한 공포의 발견술이 전제로 하는 것은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무한하게 쉽다는 것과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한 도덕 철학은 희망보다 공포를 논의의 상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도덕의 출발점을 최고선에 대한 사랑 대신에 최고악에 대한 공포, 즉 폭력적 죽음에 대한 공포로 본 홉스와는 사뭇 다르다. 오히려 요나스는 공포를 현재와 가까이에 있는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후세대의 미래에 대한 장기적 진단을 하게 하는 것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도덕철학이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임을 분명히 한다.<sup>20)</sup> 나아가 이것을 통해 표출되는 우선적인 의무는 바로 후세대의 ‘현존의 당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sup>21)</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공포와 혐오는 우선 두 감정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합리적인 이성의 개입이 허용되는 관계다. 그리고 극단적인 공포와 혐오에 대한 철학적 견해의 하나는 그것들이 인간에게 정치적인 윤리나 책임을 성립하는 중요한 실마리다.

---

17) Hobbes, T.(1651), 79쪽.  
18) Strauss, L.(1953), 27쪽.  
19) Jonas, H.(1979), 63~64쪽.  
20) Jonas, H.(1979), 65쪽.  
21) Jonas, H.(1979), 84-91쪽을 참조.

#### 4. 혐오의 양태 분석 2: 역겨움

앞의 혐오감 유형을 분류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역겨움은 먼저 감각에 의해 이루어지는 혐오로 감각적 혐오감에서 생존적 혐오감으로 이어지는 혐오의 양태다. 현대 심리학자 로진(P. Rozin)에 의하면 역겨움은 음식과 관련되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역겨움은 어떤 역겨운 물건이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몸과 자아를 오염시킨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다.”라고 정의한다.<sup>22)</sup> 또한 “혐오는 역겨운 대상이 입을 통한 체내로 들어가는 것의 가능성에 대한 불쾌감이고 그 역겨움의 대상은 오염물이다. 즉 오염물이 우리가 먹으려 하는 음식물에 살짝이라도 닿게 된다면, 그 음식은 먹을 수 없게 된다.”<sup>23)</sup>고 그는 말한다. 역겨움에 의한 혐오감이란, 특히 음식을 둘러싼 역겨움은 관념적 요인들[그 물질의 사회적 역사나 항목의 기원과 본성과 같은]에 의해 우선적으로 거부를 일으키는 혐오의 유형이다.<sup>24)</sup>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혐오가 대상의 감각적 속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표상이 확산을 가진다는 점이다. 표상의 확산은 자기가 역겨움을 느낀 음식이나 물질을 오염물질로 간주하듯이 어떤 행동의 입장이나 도덕적 판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물질에 대한 혐오감의 확산을 의미한다. 콜라이의 혐오의 양태 중에 가장 큰 확산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역겨움이다. 역겨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적 혐오감에서 문화적 혐오로 확장될 수 있다. 유명한 도덕 심리학자인 하이트(J. Haidt)의 ‘줄리와 마크’ 사례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22) Rozin P., Fallon A.(1987), 23~24쪽.

23) Rozin P.(1997), 108쪽.

24) Rozin P., Fallon A.(1987), 24쪽.

“줄리와 마크는 친남매다. 대학생인 그들은 여름 방학을 이용해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고 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바닷가의 한 오두막에서 단둘이 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시험 삼아 섹스를 하면 흥미롭고 재미있을 거라는 결론에 이른다. 그것은 최소한 서로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줄리는 이미 피임약을 복용했고 마크 역시 안전을 위해 콘돔을 사용한다. 두 사람 모두 섹스가 즐거웠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이 남매는 그 밤의 일을 특별한 비밀로 간직하고 그로 인해 서로 한층 가까워졌음을 느낀다.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들은 섹스해도 괜찮은가?<sup>2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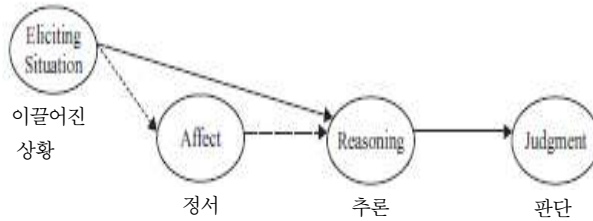
하이트는 “줄리와 마크 남매의 행동에 문제가 없느냐?”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남매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역겹다고 즉각 부정적으로 대답한다. 그 이유로 많은 학생들이 근친상간은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거나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두 가지 피임법을 사용했으므로 기형아 출산은 문제가 없으며, 성 관계 후 남매는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감정을 다치지도 않았다고 하이트 교수는 반박했다. 그러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저 잘못된 일이라는 것밖에는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다.<sup>26)</sup>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으로, 특히 역겨움으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도덕적 말더듬이(moral dumb founding)<sup>27)</sup>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이트는 주장한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특히 윤리적 평가가 동반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윤리적 결정이나 평가는 이성적 판단보다 감성적 판단이 앞섬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특히 기술 윤리학의 한 분야인 도덕 심

---

25) Haidt, J.(2001). 1024쪽.

26) Haidt, J.(2001), 102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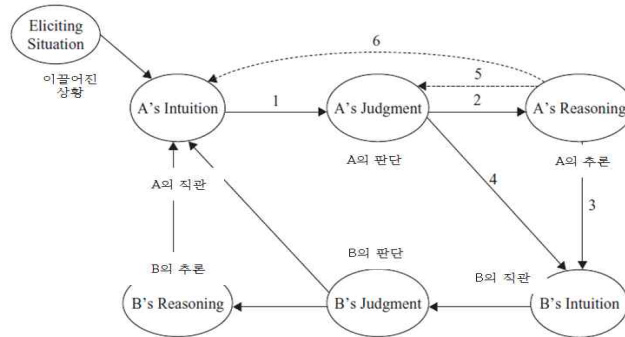
27) 이것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Royzman, E., Kim, K., Leeman, R.(2015), 296~313쪽을 참조.



<그림 1> 도덕 판단의 이성주의 모형

리학에 있어 도덕적 판단에 관한 이성주의 접근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학문적 주류였으며 그 모형은 다음의 <그림 1>과 같다.<sup>28)</sup>

이성주의 모형은 특히 도덕성이나 도덕 발달의 분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도덕적 판단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이바지해 왔다. 하지만 도덕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앞의 줄리와 마크 남매의 사례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판단의 상황에서 감정이나 정서들이 이성의 추론을 거치지 않고 판



<그림 2>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

28) Haidt, J.(2001), 1025쪽.

단으로 직접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 말더듬이를 일으키는 현상들이 바로 의사결정이나 도덕적 판단에 있어 이성주의의 한계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이나 정서에 대한 이성주의 모형에 반대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하이트는 다음의 <그림 2>와 같은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social intuitionist model)을 제안한다.

요약하면, 하이트의 사회적 직관주의 모형은 의사결정이나 도덕적 판단이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러한 정서가 진화된 ‘직관’으로부터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직관은 가치에 따른 사회적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덕적 감성과 직관은 선천적인 것이면서 문화화될(enculturated) 수 있다.<sup>29)</sup> 사실 이렇게 의사결정이나 도덕적 판단에서 자신의 견해나 평가가 이성[적 자아]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감정[적 자아]에 의한 것인가와 같은 문제는 오래된 철학적 주제 중 하나였다. 근대 철학자인 흄(D. Hume)은 옳고 그름을 감정적으로 느낀다고 믿었다. 흄은 이성과 정념들과의 문제에 있어 이성의 역할을 제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성만으로는 결코 의지에 따르는 어떤 행위의 계기가 될 수 없으며, 이성만으로는 의지의 지시에 있어서 정념에 대립할 수 없다.”<sup>30)</sup> 따라서 “이성은 오직 정념의 노예며 노예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성은 정념들에 봉사하고 순종하는 일 이외의 다른 일이 없다.”<sup>31)</sup>

흄에게 있어 혐오나 선호가 어떤 대상을 향해 일어나는 것은 이성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나 쾌락에 대한 전망 때문이며 이성은 단지 행위를 일으키는 의지를 돕는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sup>32)</sup> 또한 “도

---

29) Haidt, J.(2001), 1040쪽.  
30) Hume, D.(1964), 413쪽.  
31) Hume, D.(1964), 415쪽.  
32) 최희봉(1996), 120~121쪽.

덕 감정이 생리적인 구조나 기분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질병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없는 한에서 도덕 감정 자체를 없앨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sup>33)</sup> 이렇게 흄에게 있어 도덕 판단의 시작과 끝은 감정 판단이다. 다시 말해 이성과 믿음은 단독으로 행동으로 이끌 수 없다는 흄의 논증이 참인 한, 행위자의 도덕적 판단은 개별적 감정 판단이다.

그러나 비록 이런 감정 판단을 할 때 마다 실제로 매번 우리는 언제나 보편적 관점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보편적 도덕 판단을 유지시키는 것은 감정이 될 수 없다.<sup>34)</sup> 이미 플라톤(Plato)이나 흄 이후의 칸트(I. Kant)도 인간의 도덕적 행위 뒤에 그 행위의 보편성을 뒷받침하는 이성의 작용이 있다고 믿었다. 그렇다면 역겨움이라는 혐오감을 중심으로 도덕적 판단의 감정과 이성의 주도권 문제에 접근해 보자. 필자는 흄의 정념주의나 하이트의 직관주의 입장을 다음의 (가)로, 칸트의 의무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성주의 입장<sup>35)</sup>을 (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다.

- (가) 나는 x에 역겨움을 느낀다. 즉각적으로 x는 옳지 않다. [혹은 나는 X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 (나) 모든 x에 대해서 x가 역겨움을 주는 것이라면, x를 옳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forall(x)(Dx \rightarrow \sim Jx)$ ]. a는 역겨움을 준다[Da]. 따라서 a는 옳지 않다[ $\sim Ja$ ].

33) Hume, D., 이준호 역(1998), 49쪽.

34) 맹주만(2014), 63쪽 참조. 맹주만에 의하면 흄이 공감에 부여했던 보편적 관점은 단순히 관점에서 이행이 아니라 도덕감이 [수행]하는 개별 판단의 실천적 구속력과 같은 것을 가져야 한다.

35) 여기서 (나)는 파워스(T. Powers(2006))의 견해를 따랐다. 그는 칸트의 의무론이 우선적으로 기본 원칙들만 주어진다면 어떤 행동이 그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나 어떤 행동이 그 원칙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지를 따지는 연역 논리를 동반한다고 주장한다. Powers, T.(2006), 46-51쪽을 참조.

앞의 (가)와 (나)의  $x$ 에 적절한 역겨움은 감각적 혐오감이 아니다. 오히려 앞의 혐오의 유형에 따르면 역겨움에 의한 혐오는 관념화된 혐오, 즉 문화적 혐오가  $x$ 에 더 적절하다. 만일 (가)와 (나)의  $x$ 를 근친상간이라면, 그것이 주는 역겨움은 감각적 혐오감이나 생존적 혐오감과 다르다. 그것은 자신의 문화적 관념에서 수용할 수 없는 어떤 사태를 마치 감각적 혐오감에 투사함으로써 거부감을 드러내는 혐오의 유형이다. 이렇게 혐오감이 문화적 혐오인 경우, 필자는 판단하는 주체로서 이성이 어떤 도덕적 판단에 최소한 개입한다고 생각한다.<sup>36)</sup>

### 5. 혐오의 양태 분석 3: 증오

증오는 혐오감이 분노와 같이 느껴질 때, 무엇을 싫어하는 감정과 그것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중첩된 것이다. 또한 역겨움이나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인 반면 증오는 오래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외부 자극에 대한 일시적 반응인 일반적 감정과 다르다. 또한, 보통 일반적인 감정은 참고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지만, 증오는 더욱 커지는 경향을 지닌다.<sup>37)</sup> 이것은 증오가 감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이성적 영역으로 쉽게 확산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혐오의 양태인 증오는 대개 경멸이나 적대로 표출된다. 증오가 인간의 선형적인 감정에서 출발한다면 경

---

36)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도덕적 판단의 이성이 최소한 개입한다는 것은 특히 (가)의 경우 데카르트(R. Descarte)의 코기토(cogito)처럼 우리는 선형적으로 여러 가지 감정을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인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즉 (가)는 이성이 감성의 도덕 판단에 최소한의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어떤 도덕 판단에서 이성이 그 주도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흄의 입장에서 문화적 혐오가 사회적 관습에 의해 거부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역시 이성의 최소한의 개입을 차단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37) 최현석(2011), 9장 「싫음」 부분을 참조.

멸이나 적대는 의식적인 발현이다.<sup>38)</sup> 지금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혐오는 다음과 같은 혐오표현의 연장선에 있다.

혐오표현이란 “반유대주의,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 인종적 증오를 확산시키거나 선동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또는 소수자, 이주자, 이주 기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격적인 민족주의, 자민족중심주의, 차별, 적대 등에 의해 표현되는 불관용에 근거한 다른 형태의 증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sup>39)</sup>

따라서 ‘혐오’는 단순히 어떤 대상을 향한 단순한 일반적 불쾌감이나 적대감을 넘어 인종, 성별, 성적지향, 장애 등의 ‘차별사유’를 가진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나 증오를 표현한다. 경멸이나 적대로 표출된 증오는 필자가 구분한 권력적 혐오에 해당한다. 대개 증오는 권력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상을 향하는 데 반해, 경멸이나 적대는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대상에게 향한다. 경멸이나 적대로 표출되는 권력적 혐오의 역사적 사례는 많다. 14세기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했고,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흑사병은 크림 반도 남부 연안에서 발원해 1347년부터 4년간 발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특히 도시에는 인구의 절반이 죽었다. 도시를 담당하던 통제기구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유럽에 흑사병으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발견한 분노의 대상은 소수인종이었던 유대인들이었다. 이성적으로 볼 때, 흑사병과 유대인은 상관관계가 없다. 하지만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필요했던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이 식수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으로 그들만의 상관관계를 만들었다.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생매장하거나 불태워 죽였다.

38) 김형환(2016), 5쪽.

39) 홍성수(2013), 6~7쪽.

콜라이에 따르면, 이러한 증오가 목적하는 것은 어떤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증오는 감정적 싫음, 정죄, 비난 또는 혐오를 전제하고 있다.<sup>40)</sup> 또한, 그는 “증오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도덕적 악으로 경험한 것에 반대하려는 도덕적 감정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면서 “증오가 [어느 정도] 옳음과 그름의 그럴듯한 개념(a specious conception)에 잘 접근한다.”<sup>41)</sup>라고 말한다. 필자도 증오가 어느 정도 자기옹호적인 합리화를 동반하는 것에 동의한다. 사실 사회의 개인들은 자신들이 지닌 어떤 관념과 현실이 일치할 때, 그들은 사회에 조화롭게 적응한다. 반대로, 내안의 관념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을 때, 사람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그리고 현실이 내가 믿는 [도덕적] 관념과 어긋날 때, 우리는 서서히 분노와 증오를 느끼게 된다. 한 사회에 분노가 만연해있는 현상은 개인들이 가진 관념이 현실의 사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2)</sup>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은 심심치 않게 삶에서 나오는 모든 불만, 갈등, 분노, 증오를 사회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하다. 여기서 사회는 주로 정부, 국가, 정치인 등과 동일시된다. 이것 역시 감정이 이성의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자신의 감정을 자기 합리화로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많은 사회적 분노는 자신의 삶에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자기 삶의 의미를 스스로 잘 알지 못하겠다는 것, 내가 나에게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건전한 열의와 희망을 품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온다.<sup>43)</sup> 관념 안에 '나'를 바탕으로 한 자존감 대신 '타인'을 바탕으로 한 비교심리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할 때 우리는 증오와 시기에 빠진 인간이 된다.<sup>44)</sup> 따라서 사람들이 그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 분노

---

40) Kolnai, A(1998), 591쪽.

41) Kolnai, A(1998), 592쪽.

42) 정지우(2014). 16쪽.

43) 정지우(2014). 19쪽.

44) 정지우(2014). 39쪽.

와 사회에 대한 객관적 분노를 혼동할 때, 사회에는 해결 불가능한 충동적인 증오가 넘쳐나게 되고 그 증오는 어떤 양태든지 간에 권력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현대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프롬(E. Fromm)은 저서 《on disobedience and other essays》에서 충동적 감정이나 원망, 증오에 의한 행동은 인간을 노예나 반역자로 만든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복종할 줄만 알고, 반항할 줄 모른다면 그는 노예다. 또한 만일 그가 반항할 줄만 알고, 복종할 줄 모른다면 그는 반역자다. 노예나 반역자는 분노, 실망, 원한[과 같은 증오] 때문에 행동하지만 신념이나 원리(정당한 관념)의 이름으로 행동하지 않는다.”<sup>45)</sup>

## 6. 감정의 철학적 분석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필자는 콜라이가 제시한 혐오의 양태인 공포, 역겨움, 그리고 증오를 중심으로 현대 우리 사회에 하나의 화두로 자리 잡은 “혐오”를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필자는 혐오를 감각의 영역에서 감각적 혐오감과 생존의 혐오감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생존적 혐오감은 죽음과 같이 극단적일 경우 원초적으로 이성의 개입이 동반된다. 이러한 특징을 분명히 보이는 혐오의 양태가 바로 공포다. 홉스는 우리의 공포심이 자연권의 양도와 더불어 시민법[윤리]과 국가형성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 뿐만 아니라 요나스는 공포를 미래의 환경윤리의 근간으로 간주했다.

또한 필자는 관념적 영역에서 혐오로 문화적 혐오와 권력적 혐오를 제시하였다. 콜라이의 혐오의 양태 중에 개인적 감정에서 사회적 관념으로

---

45) Fromm, E.(1984), 3-4쪽.

확산력을 보이는 것이 바로 역겨움이다. 역겨움이라는 감정은 생존적 혐오감에서 문화적 혐오로 확장될 수 있다. 하이트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 도덕 심리학자들은 문화적 혐오로 확장된 역겨움이 의사결정이나 도덕 판단에서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기존의 이성주의 모형이 지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도덕적 판단이 감정과 그에 따른 직관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근대 철학에서 흄을 중심으로 하는 경험적 정념주의와 칸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성주의 사이에서 펼쳐진 윤리적 논쟁의 연장선이다. 이 논쟁에 대해 필자는 역겨움이라는 감정이 문화적 혐오로 확장되는 한, 의사결정이나 도덕 판단에서 이성의 역할이 흄이 말한 것처럼 노예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면 혐오의 세 번째 양태인 증오는 혐오감이 분노와 동반되어 나타난다. 증오는 대개 경멸이나 적대로 표출되는 경멸과 적대로 표출되는 혐오는 권력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권력적 혐오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도덕적 합리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일자리를 늘리고 문화공간이나 쇼핑시설이 늘어오는 것은 반기지만 화장터나 사드(THAAD), 원자력 시설 등이 자신들의 삶의 공간에 있는 것을 혐오한다. 이렇듯 혐오는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어하려는 심리가 작동한다. 하지만 이러한 혐오감이 철학자들의 기대처럼 이성의 영역에서 조절되거나 제한되어 윤리나 도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의 혐오 방향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에게 드러나는 혐오의 기제는 자신과 타자를 구분하고 그것을 선악의 구조로 대체하고 타자들에 대한 낙인효과를 부추기며 자신의 신념, 행동만을 합리화하고 있다. 심지어 어느 순간 자신의 혐오감을 제어하지 못해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쩌면 우리의 무지와 편견이 혐오를 양산하는 인큐베이터다. 그래서 지금은 감정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 더 요구되는 시대다. 프롬의 말처럼 우리가 정당한 명분으로 자기 삶의 노예나 반역자가 아니라 주체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다.

## 참고문헌

- 김형환(2016), ‘차별과 혐오, 인권의 패러다임’,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토론회 자료집.
- 맹주만(2014) ‘흠과 공감의 도덕성’, 『철학탐구』 36. 중앙철학 연구소.
- 양선이(2014), ‘흠의 도덕 감정론에 나타난 ‘반성’ 개념의 역할과 도덕감정의 합리성 문제’, 『철학』 119, 한국철학회.
- 정지우(2014), 『분노사회 : 현대사회의 감정에 관한 철학 에세이』, 부산 : 이경.
- 조순경(2002), 「차별의 이해」, 『차별행위 이론과 실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조사국편집, 국가인권위원회.
- 최현석(2011), 『인간의 모든 감정: 우리는 왜 슬프고 기쁘고 사랑하고 분노 하는가』, 서해문집.
- 최희봉(1996), 『흠의 철학』, 서울: 자작나무.
- 홍성수(2013), 「표현의 자유의 한계 : 혐오발언 규제의 정당성과 방법」,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차별금지 법제정 연대 공동주최 토론회 자료.
- Curtis, V., Aunger, R., Rabie, T.(2004), Evidence that disgust evolved to protect from risk of disease,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iological Sciences*, Series B, 271.
- Darwin, C.(1872), *The expression of the emotions in man and animals*, London, John Murray.
- Fromm, E.(1984), *On Disobedience and Other Essays*, RKP.
- Fessler, D., Haley, K.(2006), Guarding the perimeter: the outsideinside dichotomy in disgust and bodily experience, *Cognition and Emotion*, 20.

- Haidt, J.(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 in edited by Adler, J. E. & Rips, L. J. (2008), *REASONING*.
- Hobbes, T.(1651), *Leviathan*, London, Andrew Crooke.
- Hume, D.(1964), *A Treatise of Human Nature*, London: Scientia Verlag Aalen.
- Hume, D., 이준호 역(1998), 《도덕에 관하여》, 서광사.
- Jonas, H.(1979),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ivilisation*, Frankfurt/Neuaufgabe als Suhrkamp Taschenbuch.
- Kolnai, A.(1998), The Standard Modes of Aversion: Fear, Disgust and Hatred, *Mind*, Vol. 107.
- Lewis D.(1973), “Causation”, *Journal of Philosophy* 70.
- Powers, T.(2006), Prospects for a Kantian Machine, *Intelligent Systems*, IEEE 21(4).
- Royzman, E., Kim, K., Leeman, R.(2015), The curious tale of Julie and Mark: Unraveling the moral dumbfounding effect,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Vol. 10, No. 4.
- Rozin P, Fallon A.(1987), A perspective on disgust, *Psychol Rev* 94.
- Rozin P.(1997), Body, Psyche, and Cul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Disgust and Morality,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9.
- Rozin, P., Haidt, J., & McCauley, C. R.(2008), Disgust, In Lewis, M. & Haviland, J.(Eds.), *Handbook of emotions*, 2nd edition, New York: Guilford Press.
- Strauss, L.(1953), *Natural Right and History*, Chicago;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ttps://brunch.co.kr/@kpf10/236>.

<https://ko.wikipedia.org/wiki/%ED%98%90%EC%98%A4>.

<http://terms.naver.com/list.nhn?cid=42063&categoryId=42063&so=st4.asc>.

## Aversion, Its Analysis and Philosophical Idea

Choi, Hyun-Cheol (Hoseo Univ.)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nceptually analyze the aversion that has been a topic of contemporary Korean society, focusing on fear, disgust, and hatred, which is the mode of aversion proposed by A. Kolnai. I classified aversion into sensual aversion and aversion of survival in the area of sensation. In particular, survival aversion allows for primordial intervention of reason in extreme cases such as death. Fear is evident in these features. T. Hobbes and H. Jonas are philosophers who agree with this. In addition, I have presented aversion in the ideological and phenomenological realms as cultural aversion and power aversion. Disgust has spread from personal feelings to social notions. Modern moral psychologists such as J. Haidt argue that the disgust that spreads from cultural aversion plays a leading role in decision-making or moral judgment. But as long as the feeling of disgust extends to cultural aversion, the role of reason in decision-making or moral judgment is not slavery of the mind as D. Hume claims. And hatred is accompanied by anger. Hatred is usually expressed as contempt or hostility. This hatred as aversion forms a power relationship. Moral rationalization appears to justify this power aversion when it is transferred to action.

**Key words:** aversion, fear, disgust, hatred, moral rationalization

혐오, 그 분석과 철학적 소고 / 최현철

최현철 E-mail: [choihc71@hoseo.edu](mailto:choihc71@hoseo.edu)

투 고 일	2017년 04월 03일
심 사 일	2017년 05월 02일
게재확정	2017년 05월 22일